

Hello, I am Sister Maureen O'Brien.

Following my graduation from Sacred Heart High School in Pittsburgh,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62. The idea of becoming a Sister was in and out of my



head throughout 12 years of education by the Sisters of Charity. As a child, I was inspired by their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the educational enterprise. One thing was for sure: I wanted to be a teacher and the sisters were my role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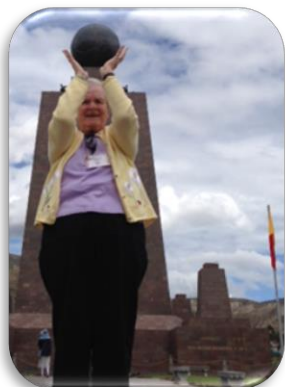
They introduced us to the life and the legacy of Elizabeth Seton. As we learned of her life as wife, mother, educator, and foundress, we prayed for the day when she would become a saint. I was honored to be present in St. Peter's Square on September 14, 1975, when Pope Paul VI proclaimed to the world, "Elizabeth Ann Bayley Seton is a Saint." When I decided to enter a religious community, there was no doubt that the community would be the Sisters of Charity, the daughters of Elizabeth Seton.

Life as a woman religious in 1962 was different than it is today. We lived religious life before Vatican Council II and after the Council. The years following the Council were exciting ones as we were engaged and challenged by the documents of Vatican II. Those documents became our textbooks in formation.

My dream of becoming a teacher became a reality. The first ten years of active ministry were spent as an elementary teacher, primarily, though not exclusively, of music. Then, it was on to Religious Education,

Retreat Ministry, Campus Ministry on the secondary level, and Now at Seton Hill University.

I would describe my passion through these years as grounded in ministry to youth and young adults. I find great joy and hope as I work with them, share their journey, and *"fit them for that world in which they are destined to live"*. (EAS)



안녕하세요! 저는 모린 오브라이언 수녀입니다.

피츠버그 성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2년 9월 8일 수녀회에 입회했어요. 사실 사랑의 씨튼 수녀회 수녀님들에게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12년의 세월 동안 수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답니다.



어렸을 적에 수녀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과 헌신에 감동 받았어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저 역시 교사가 되고 싶었고 수녀님들이 제 모델이 돼 주신 거죠. 수녀님들은 엘리사벳 씨튼의 생애와 업적을 어린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내요, 어머니로서, 교육자로서, 수도회 창설자로서의 그분의 삶을 배워가면서 어린 저희들이었지만 꼭 그분이 성인품에 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1962년도의 여자 수도자들의 삶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모두 산 거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참으로 많은 도전과 변화들을 가져왔답니다. 양성기 교재로 바로 공의회 문헌을 사용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제 꿈은 이뤄졌어요. 사도직을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주로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종교교사. 피정지도, 중고등학교 교목을 담당했었고 현재 씨튼힐 대학에서



교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세월을 청소년들을 위한 사도직에 몸 담았네요.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무척 행복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엘리사벳 씨튼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야 할 이 세상에 이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답니다.

